

북한을 위한 기도

2025년 4월



1.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의 노동 및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나온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노동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문이 열리도록,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마음 받이 개간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의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의 종전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수물자 수출과 군대 파견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북한에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외화벌이 방안으로 노동자 파견 활성화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재건에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그 외 지역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노동자 송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게 될 세계 여러 지역의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선교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세계 교회와의 협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 (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 관련 연구와 보도들, 그리고 현장의 소식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국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북한	11	인도
2	소말리아	12	사우디아라비아
3	예멘	13	미얀마
4	리비아	14	말리
5	수단	15	중국
6	에리트레아	16	몰디브
7	나이지리아	17	이라크
8	파키스탄	18	시리아
9	이란	19	알제리
10	아프가니스탄	20	부르키나파소

〈자료:한국오픈도어선교회〉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과 강제복송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난 김정욱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관련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도 1년 넘게 억류되어 계십니다.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복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시다.



5. 디지털 기술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자경제'를 내세우며 디지털 기술을 보급, 활용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영을 효율화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의 디지털 기술은 스마트폰 보급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돕는 긍정적 효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정책은 디지털 기술이 주민들에게 미칠 사상문화적 영향을 차단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 장악하려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통제의 도구가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 등 국가 간 관계 변화에 따라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최근 급박한 정세 변화 역시 북한 선교 현장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예의 주시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현장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정세와 그에 따른 파장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전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역환경이 조성되고 더 많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2017사드사태 당시 선교사 추방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삼국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선교 선교현장에서는 현지인 동역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서구 출신의 선교사들은 이방인이므로 선교지에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현지인은 민감한 곳에서도 제약 없이 이동하며 사역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십수 년간 선교지 당국의 박해와 현지인 사회 붕괴로 인하여 북한선교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현지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지인 사역자들이 양성되며 선교사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